

김진애의 ‘이 시대 리더십’



상식의 리더십을 기다린다

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하는 시
간이다. 치졸하고 비열하고 처참한 국정
농단의 흉측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는 가
운데 우리는 모욕감과 배신감과 좌절감
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. 촛불로 밝힌
희망이라도 없었더라면 그 절망감에서
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. 탄핵 판결을 기
다리는 과정이지만 조기 대선 확률이 높
은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
높아진다.

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‘상식의 리
더십’ 아닐까? 인간으로서의 상식, 사회
운영의 상식,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식,
정치 윤리의 상식, 경제 운용의 상식, 국
가 운영의 상식 등. 이명박-박근혜 정부
십년 동안 무너진 상식을 어떻게 회복하
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. 올해 등장하
는 리더십은 결코 만만찮은 대내외적인
문제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부디 대한민국
에 상식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기 바
란다.

첫째, ‘언어의 상식’을 회복하기 바란
다.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기
자 간담회에서 보여 준 언어의 모습은 한
마디로 망가져 있었다. 재임 시에도 그 언

어가 수시로 비판을 받아 왔지만, 지금은
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던져 버린 채 장
황하고 번다하게, 문장의 논리도 없이 이
거·저거·그렇게 등 지시대명사와 부사를
남발하면서, 그저 변명과 책임 모면에 올
인하는 모습을 보인다. 말은 곧 그 사람이
다.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글
사랑과 말 사랑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더
라도, 남이 써 준 것 외에는 읽지 못하는
사람, 문답을 할 수 없는 사람, 토론을 하
지 못하는 사람은 공공의 장면에서 사라
져야 한다.

둘째, ‘공직의 상식’을 회복하기 바란
다. 적어도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그 직에
맞는 책임 의식과 그 직에 걸맞은 역량뿐
아니라 공공 의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용
기를 갖춰야 한다. ‘일에 집중’해야 하고
‘과제에 집중’해야 한다. 약점을 가진 사
람을 일부러 발탁하고 그 약점으로 조종
하는 박근혜 식 지배를 벗어나는 과제는
개인의 과제라기보다는 공직 전체의 과
제다.

셋째, 공정 매커니즘의 상식을 회복하
기 바란다. 박근혜와 측근의 국정 농단은
근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다 어겨도 관철

다고 여긴 박근혜 식 오만 때문이기도 하
였지만, 여당의 정치 윤리와 언론의 공공
의식이 살아 있었더라면 진즉 견제되었
을 수도 있었다. 국정원, 검찰, 경찰, 법원
등 권력기관들을 옹커쥐고 국정청, 선거
관리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력
기관으로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
화계 블랙리스트와 교육계 블루리스트를
악용하고 자기 편 시민단체를 동원해 여
론을 선동하고 세금과 경제단체 후원까
지 악용하는 사악함은 사라져야만 한다.

지난 10년은 망가진 10년이였다. 진실
은 은폐되었고 거짓은 휘몰아쳤다. 사람
들의 입을 막았고 일자리와 특혜적 지원
으로 위협하고 또 길들였다. 특히 재갈을
물린 언론, 당근에 놀아난 언론은 자체적
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. 정상
적인 노력과 응당한 보상이 아니라 ‘연’과
‘출’을 찾아 한 자리 차지하려던 통파리
들,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한 종이호랑이
들, 권력에 굴종한 수많은 부끄러운 지식
인들,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취했던가?
그런 특권이 영구적으로 갈 거라 믿었던
가? 그 세력의 뿌리는 그렇게도 깊은 걸
까?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익은

그렇게도 달콤한 걸까?

상식의 리더십을 만들어 갈 자적이 있
는 사람들은 누구일까? 아닌 건 아니라고
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한다.
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 구조
를 바꾸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은 선별
해 내자.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파트너십
을 바꾸는 졸렬한 사람들은 걸러 내자. 평
생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일해 왔
나를 검증하자. 출세와 특권과 반칙에 익
숙한 사람들은 모두 걸러 내자. 비상식적
인 국가 운영으로 고통받아 왔고 지금도
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외 계층, 허리
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 중소기업
과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
지 점검하자. 자기가 속한 전문 집단과 지
역의 공익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
해 왔는지 점검하자. 이 비상식의 고리를
끊어 낼 수 있는 용단과 용기를 갖고 있는
지 검증하자.

아직도 새해가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
찻찻한 시간이지만, 결단의 시간은 어느
새 우리 곁에 스며 다가왔다. 2017년의 상
식을 위하여, 건투!

〈전 국회의원·도시건축가〉

의료칼럼

눈대중 식사요법



양 태 영
태영21병원 대표원장

당뇨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뇨
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
요하다.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현재 성
인의 10% 정도로 추정된다. 향후 더 증가
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간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
고, 치료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
만 24시간 내내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것
이 매우 어렵다.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
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, 운동부
족,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의 문제인 경우
가 많다. 즉 생활습관의 문제로 인해 당

뇨병이 발병되고, 악화한다. 특히 식생활
만 지혜롭게 바뀌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
있고, 당뇨병 합병증도 최대한 줄일 수
있다.

보통 당뇨 식이요법을 교육할 땐 음식
물 모형을 진열해두고 칼로리 표를 붙여
놓은 뒤, 본인의 칼로리에 맞는 음식과 그
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. 즉 키
170cm·몸무게 70Kg의 55세 회사원이라
면, 하루 칼로리가 2400Kcal가 필요하고
한끼에 대략 800Kcal가 필요하니까 밥
은 200Kcal, 단백질은 400Kcal 등으로
가르친다. 또 밥 200kcal 는 보통 공기그
릇의 5/4 정도에 해당하고 고구마나 빵을
먹을 땐 한 조각이 150Kcal 정도 되므로
한 조각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는 식으
로 가르친다.

그러나 사실상 환자들이 음식별로 칼
로리를 계산해가며 조절하는 것은 쉽지
않다.

이에 태영21병원은 ‘눈대중 식사법’이
라는 행사를 기획했다. 병원 로비에 뷔페

를 차려놓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평소애
한 끼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을 식판에 담아
오게 한 후, 영양사와 당뇨전문 간호사들
이 그 음식들의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것
이다.

담아온 밥의 양이 250kcal 정도라면
한 숟가락을 덜어내어 환자가 평소 먹어
야 할 밥량을 눈대중으로 조절해 주는 것
이다. 생선도 한 마리를 가져 왔다면 2/3
정도가 적당하다고 가르쳐 주고, 반면 고
기나 두부가 250Kcal 정도 필요한데 가
져온 양이 200kcal로 적게 가져왔다면
“두부와 육고기는 조금 더 드셔도 됩니
다” 라고 현장에서 바로 본인이 한끼 먹
을 수 있는 양을 조정해 주는 교육방식이
다. 즉 환자들의 평소식습관을 분석하고,
음식의 양을 조절해줘 집으로 돌아가서
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음식을 조절해 먹
도록 유도하는 것이다.

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
환이다. 그래서 약물만으로 조절이 안 되
는 경우는 인슐린주사를 매일 맞아야 한

다. 또한 임신중에는 약을 먹을 수 없으므
로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. 이 경우 매일
혈당 상태를 보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
야 하는데 숙련되기까지 스스로 용량을
조절하기가 쉽지 않다. 그렇다고 매일 병
원에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.

그래서 인슐린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
환자의 혈당기록을 SNS를 통해 받은 후,
인슐린 용량을 SNS를 통해서 조절해 주
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특히 임신성 당뇨
의 산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수년 동안 아무
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고혈당
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
많다. 이때는 이미 췌장기능이 30~50%
정도 밖에 남지 않고 합병증이 진행된 상
태이다.

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혈당조절을
잘하면 아무리 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
생동안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
다.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는 좋은 생활 습
관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.

기 고

광주 택시에 색깔을 입히자



장 영 주
전 광주교통방송 본부장

광주시를 부르는 이름은 꽤 많다. 오래
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‘예술의 도시, 광
주’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다. 지난 2005
년경부터 한 언론사를 통해 시작된 ‘문화
수도, 광주’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
불어 더 호감이 가는 이름으로 여겨진다.
이 밖에도 비엔날레 행사와 더불어 부르
기 시작한 ‘비엔날레 광주’, ‘인권·민주·
평화도시 광주’는 5·18과 함께 광주를 상
징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기억한다.

광주시를 상징하는 도시의 색깔이나
랜드 마크는 무엇일까?

필자는 가끔 여등산에 올라갈 때 무등
산 자락 아래 펼쳐진 광주시가지 전경을
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. 광주
라는 도시가 별로 색이 없구나. 우후죽순
처럼 솟아나 제멋대로 숲을 이루고 있는
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스카이라인이 없
음을 안타까워하고 랜드 마크는 찾지 어
렵다고 생각을 한다. 다시 시선을 시내로

옮겨서 광주의 중심가 상무지구로 진입
해서 광주의 도시색깔을 찾아봐도 광주
를 상징할 수 있는 색깔을 찾기가 쉽지 않
다.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
광역도시,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나
타내 줄 수 있는 광주만의 색깔을 만들어
보자고 제언을 한다.
광주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은
생각 밖으로 간단하다. 예산도 거의 들지
않는다. 다만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, 동
의하고, 실천하자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
다. 바로 광주를 상징하는 색을 택시에 입
히는 것이다. 광주를 상징하는 색깔로 도
색한 택시를 만들면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
고 도시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. 광
주만의 색깔을 입는 브랜드 택시를 만들자
는 것이다. 이런 사례는 국내뿐 만 아니라
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.

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지난 2010년부
터 ‘꽃담황도색 해치택시’를 도입했다. 이
택시 색깔은 노란색보다는 진하고 갈색
보다는 연한 색으로 만들어졌다. 독자들
께서도 서울에 갔을 때 직접 그 택시를 보
셨거나 승차해봤을 것이다. 6년이 지난
꽃담황도색 택시는 어느새 서울을 대표
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고 , 도심의 색깔을
밝은 색으로 수놓고 있다. 움직이는 랜드
마크인 셈이다.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택
시는 대략 7만2000여대, 이 중 ‘꽃담 황도
색 택시’는 지난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

약 30%를 차지하고 있다.

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신차도입
때 정해진 색깔로 모두 도장을 하지만, 개
인택시의 경우는 차주에게 도입을 강제
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한다. 그럼에도
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는 꽃담 황도색
택시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다. 이 택시가
말로 대한민국 서울의 이미지를 품고 달
리는 이동식 랜드마크나 다름없다.

이 밖에도 서울에는 ‘하늘색 택시’도 있
다. 이 택시는 지난 2014년 전기택시를 도
입하면서 하늘색으로 도장을 선택했다.
또한 지난 2015년 7월에 등장한 ‘갯노란
택시’는 우리사자 형태의 한국택시협동
조합이 운영하는 택시로 다른 택시와 차
별화 전략에서 택시색깔을 노란색으로
정했다.

정주시에서는 핑크색 택시, ‘여성안심
택시’가 운행 중이다. 핑크색하면 임신사
를 위한 택시를 생각할 수 있지만, 이 택
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자 여
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택시를 도입
하면서 택시 색깔을 핑크색으로 차별화
한 것이다.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
대본이다.

도시별로 고유한 택시색깔은 외국에서
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. 뉴욕과 런던
이 대표적이다. 세계금융의 허브 뉴욕은
‘노란색 옐로 캡’(Yellow Cab)이 움직이
는 랜드마크로 불린다. 엄밀히 말하자면

‘옐로 캡’은 사람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상
을 선택한 뉴욕의 택시회사 이름(The
Yellow Cab)이다. 그러나 이 택시가 성
공하면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명
물이 됐고,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
있다. 영국 런던의 택시는 ‘블랙 캡’으로
불린다. 이 택시는 독특한 검정색으로 도
장을 하고 출입구와 천장이 높아 예전 영
국 신사들이 중절모를 벗지 않고도 승차하
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.

광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 3400
대, 개인 4800대 모두 8200대 정도다. 택
시는 법인과 개인택시 운행규정에 따라
부채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광주 시
내를 운행 중인 택시대수는 대략 4000대
로 볼 수 있다. 상당수 택시들이 광주를
상징하는 색깔을 입고 시내를 운행하면
도시 이미지는 훨씬 좋아 질 것으로 확신
한다. 광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
에도 광주의 이미지로 각인될 것이다. 그
뿐 아니다. 광주만의 색깔을 입힌 택시가
다른 도시로 갔을 때 분명해 사람들의 눈
길을 끌 것이고 아마도 좋은 이미지로 남
을 것이다.

민선 6기 운영청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
광주의 교통정책을 사람중심으로 펼치겠
다고 공언했다. 정말로 공감한다. 여기에
다 광주를 상징하는 색깔의 ‘브랜드 택시’
를 교통정책으로 도입한다면 문화도시의
랜드마크로 손색 없을 것이다.

社 說

조기 대선에 맞춰 지역 공약 발굴 서둘러야

새해 벽두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
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. 대선은
원래대로라면 12월에 치러질 것이지만
박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
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
을 상반기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
때문이다. 특히 호남 민심이 종대 변수
로 떠오르고 있다.

따라서 광주·전남 지역의 획기적인
발전을 위한 ‘그랜드 디자인’ 설계가
시급하며 이를 대선에 활용해야 한다
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 광주·전남
은 그동안 인사와 예산 등에서 타지역
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 온 게
사실이다.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
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
는 현 상황을 대선 공약으로 잘만 엮어
낸다면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을 수 있
다는 것이다.

광주시는 광주 미래비전 자문단 운영
을 통해 대형 국책 사업과 파급 효과가
큰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등 광주의 미

래 먹거리 사업 47건의 대선 공약을 발
굴했다. 자율지능형 스마트 E-시티 조
성,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
성, 국립 초미세먼지 연구소 광주 건립,
광주 신성장 산업벨리 조성 등의 사업이
대거 포함됐다.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
전당 활성화 등 지역의 미래가 담긴 여
러 현안들도 꼼꼼히 챙겨 대선 주자들의
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 분
야 123명으로 대선 지역 공약 자체 발
굴 T/F팀을 구성해 77건을 추진 뒤 보
고와 토론을 거쳐 산업과 문에 부흥 등
대상 과제를 55건으로 압축했다. 하지
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
듯 이들 장밋빛 비전들을 현실화시킬
수 있는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. 그
러기 위해선 광주시와 전남도 및 지역
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에
파급 효과가 큰 공약들을 우선 선정하
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, 실현 전략
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.

보고서 파문, 민주당이 한 개인의 사당인가

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
구원의 ‘개헌 저지 보고서’ 파문이 확산
되고 있다. 보고서는 우선 개헌을 국가
적 과제로 보지 않고 오직 정략적으로
만 접근하고 있다. “분권형 대통령제
개헌 주장 집단을 촛불 민심에 반하는
‘아랍’세력으로 몰아붙여야 한다”는
주장 등이 그것이다. 국민적 공감대 속
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고
거의 모든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개헌
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대선
전략상 유불리(有不利)만 앞세워 개헌
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.

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선 후
보로 상정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문
제다. 문 전 대표가 그동안 했던 주장과
보고서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. 문
전 대표는 얼마 전부터 이 시점에서 개
헌이야말로 ‘촛불 민심 배반’이라고 주
장해 왔다. 보고서는 또 “2017년 대선
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합종연횡이
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”며

“반기문 총장 등의 이른바 ‘제3 지대’
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패배로 이끌 수
있다”고 경계했다.

민주당 당내에서도 보고서에 대한 비
판이 나온다.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
하는 ‘경제 민주화와 재량적 대통령제
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’은 즉각 성
명서를 내고 “당 공식 기구가 특정인을
편드는 사조직 역할을 했다”고 비판했
다. 20여 명의 초선 의원들도 ‘분열을 자
초하는 행위라며’ 가세했다. 여기에 개
헌론자이자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 역
시 “당의 공식 기구가 벌써 대선 후보가
확정된 것처럼 편향된 전략 보고서를 작
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”라고 비판했다.

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‘문재인의
사당(私黨)’처럼 되고, ‘문재인판(版)
최순실’이 누구라는 얘기가까지 나돌고
있다.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 심
판을 받고 있는 판에 제야당까지 이런
식이라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한단
말인가.

無 等 鼓

광주일보가 전일빌딩에서 현재 무등
빌딩으로 이전한 것은 지난 2004년. 옛
건물에 비해 쾌적한 공간, 창밖으로 보
이는 무등산 전경 등 근무 환경은 좋아
졌지만 웬지 정이 가지 않았다. 무엇보다
다 ‘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’라
는 상징적 주소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
게 아쉬웠다.

서운함을 달래 준 건 지하 2층에 자
리한 삼복서점이었다. 기사 작성 중 급
히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 서점의 존재
는 더없이 유용했다.

서점의 추억

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. 자주 오르락
내리락하다 보니 책 진열에도 익숙해
져 절반쯤은 직원이 된 기분도 들었다.
아는 사람들에겐 ‘엄청나게 큰 개인 서
재’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.
광주 토박이들 치고 삼복서점에 대한
추억 하나 갖지 않은 이는 아마 없을 것
이다. 1932년 문을 연 삼복서점의 전성
기는 충장로 우체국 옆에 자리했던 시
절이었다. 지하 1층, 지상 2층으로 이뤄
진 매장엔 온갖 책들이 가득했다. 베스
트셀러와 잡지 등이 진열된 1층 매장은
‘만남의 광장’이었고 서점 앞은 언제나

사람들로 붐볐다. 무등빌딩으로 옮겼던
본점은 76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
2008년 문을 닫았다. 현재는 상무지구
와 운남지구에 매장을 운영 중이다.

지난 2002년 문을 닫았다 지난해말
다시 문을 연 서울 ‘종로서적’이 화제
다. 도심 한복판에 300평 규모로 문을
열었는데 하루 방문객이 3~4천 명, 매
출은 1500~2000만 원 수준으로 호응
이 좋다고 한다.

1907년 문을 연 종로서적은 서울 시
민들에게 상징적인 존
재였다. 인터넷에도
‘종로서적’의 추억을
떠올리는 방문객들의
글이 올라와 있다. 가끔 서울 나들이 같
때면 나도 종로서적에서 친구를 만나곤
했던 기억이 떠올라 아련한데 그들이야
오죽할까. 서점의 현 대표와 옛 종로서
적 관계자들 간에 ‘정통성’ 문제를 놓고
논란이 있는 듯하지만 새로 개장한 서점
의 존재는 어쨌든 반갑기만 하다.

‘광주에서 가장 땅값 비싼 곳’으로
유명했던 광주우체국 앞 나라서적
(1996년 폐점)이나 삼복서점이 딱히니
충장로 한복판에 다시 문을 열어 우리
의 오랜 추억도 함께 깨워 준다면 좋겠
다. /김미은 문화1부장 mekim@

독자투고·기고
환영합니다

독자투고·기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,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.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함께 적
어 주십시오.
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-2200-654 /팩스 062-222-4918 /e메일 opinion@kwangju.co.kr